함께

여름 2012

특집 여름애(愛) 사랑애 빠진애

대전중부교회

Contents

COVER STORY

그 뜨겁던 태양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도 못했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도 못했으며,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뜨겁던 여름의 태양은 우리를 더욱 강인하게 했고, 우리를 더욱 커지게 했으며, 우리를 더욱 높이 뛰어오르게 했습니다. 그 여 름 愛

2012 여름

- **목양실 러브레터** 4
- **특집 〈여름애(愛) 사랑애 빠진애〉**
  - 선교는 삶으로 빚어내는 것 8
  - 걱정과 근심을 기쁨과 소망으로 12
  - 알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16
  - 네! 네! 하나님 20
  - Yes! Yes! 하나님 22
  - JOY! JOY!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24
  - JUMP! JUMP!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28
  - 나는 심었고! 32
  -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36
  - 삼도봉에 핀 사랑의 공동체 40
  - 예수 안에 하나 46

■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환경미화팀 탐방 52

나의 삶, 나의 신앙 56

■ **우리 이웃 좋은 이웃**

가양1동 여성합창단 60

■ **중부 그루터기**

사모의 글 64

이런 일 저런 일 66

내 솜씨 우리 가족 67

함께7호_2012 여름

발행일 | 2012년 9월 8일

발행인 | 조상용

편집인 | 김용수

기자 | 심재성, 조재란, 배영미, 신신혜, 최정은

디자인 | 박나래

발행부서 | 문서홍보부

주소 | 대전시 동구 가양2동 20-11 대전중부교회

전화 | 042) 622-9991

홈페이지 | www.jungbu.or.kr

대전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주역으로!

글 · 조상용 담임목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난 54년 간 한결같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과연 창립 5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저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인간에게 세상을 잘 관리하고 보존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교회 창립5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되새겨야 할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위에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회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세워 보았습니다.

첫째,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증가와 성장을 의미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자들이 온 세상에 번저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경건한 시대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공급하는 영적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 교회는 더욱 전도와 훈련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원색적인 전도가 되살아나고, 마른 뼈들에 생명을 불어 넣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될 훈련의 혁신을 기대해 봅니다.

둘째, 정복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불신자들은 만물에게 정복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물

을 정복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대전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의 발아래 무릎 꿇게 하기까지 정복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받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스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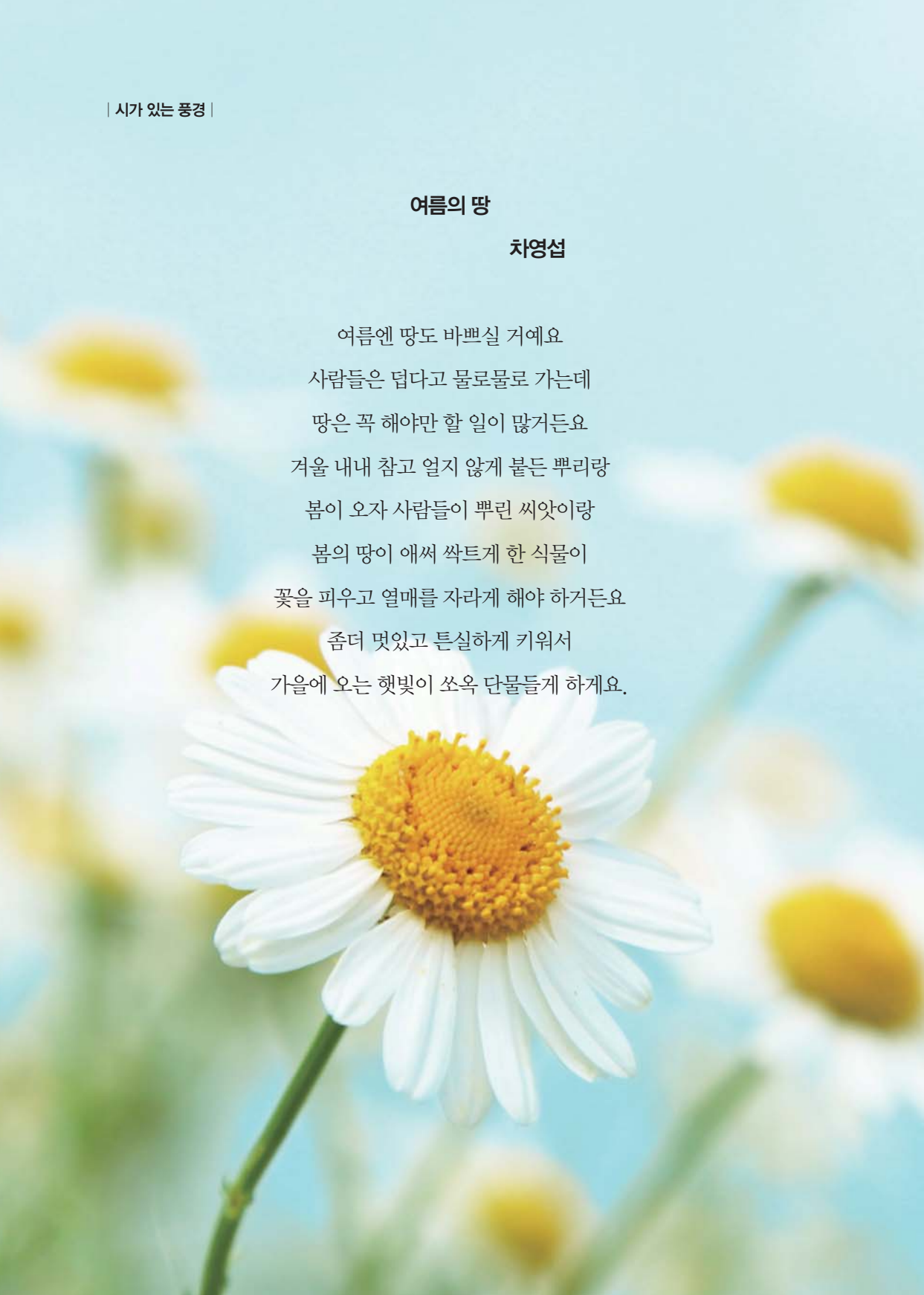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왕같은 제사장'(벧전2:9)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스린다고 할 때,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스림의 훌륭한 모델은 예수님에게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섬김으로써 다스렸습니다. 겸손과 사랑, 봉사와 희생이야말로 다스림의 요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지역사회를 위해서, 대전 시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회 창립54주년은 단지 지난 역사를 회고하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로운 사명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기회도, 새 사명도 주신 것입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진정 대전중부교회가 앞으로 써내려갈 역사는 대전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역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름의 땅

차영섭

여름엔 땅도 바쁘실 거예요
사람들은 덥다고 물로물로 가는데
땅은 꼭 해야만 할 일이 많거든요
겨울 내내 참고 얼지 않게 붙든 뿌리랑
봄이 오자 사람들이 뿌린 씨앗이랑
봄의 땅이 애써 싹트게 한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자라게 해야 하거든요
좀더 멋있고 튼실하게 키워서
가을에 오는 햇빛이 쏘옥 단물들게 하게요.



하늘의 여름

차영섭

여름엔 하늘도 힘드실 거예요
사람들은 덥다고덥다고 피서를 가는데
하늘은 꼭 해야만 될 일이 있거든요
산에산에 나무들도 키워야겠고
밭에밭에 열매들도 익혀야 하니까요.
햇살속에 물감이랑 설탕이랑 몰래 숨겨서
과일에게 곱게곱게 색칠도 해주고
듬뿍듬뿍 설탕을 뿌려줘야 하니까요

차영섭 시인은
《한맥문학》 시부문으로 등단했다. 전자 시집으로 엮은 『가벼운 사람 무거운 사람』과 일반 시집 『하늘을 닮은 사람』을 펴냈다.

우리 교회 선교의 힘, 태국 단기선교

선교는 삶으로 빚어내는 것

글 · 차문현 형제(늘푸른 청년부)

거룩한 부담감은 선물이다

부담감은 편한 감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 역시 불편할 때가 많다. 나를 갈등하도록 만들고 때로는 결단을, 때로는 헌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하지만 수차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너머에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단기 선교팀 인원이 충족되지 못하면 파송 받지 못한다는 주일 광고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부담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 한 사람이 안 가서 선교를 못 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막고 싶지 않았고 동시에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태국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큰 선물이었다.

주님이 허락하신 학교사역

선교를 가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것이 '학교 사역'이었다. 어떻게 미션스쿨이 아닌 일반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직접 경험하고 보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학교 안에 교회가 있는 뽕두 교회는 신기할 따름이었고 불상이 놓여진 학교 강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었다. 4곳이나 되는 학교의 문을 열기 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을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다.

매 순간 기도가 필요했음에도 어느 순간은 동작을 똑바로 하기 위해, 혹 얼어붙은 분위기 때문에, 혹 너무 뜨거운 분위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때가 있었다. 하지만 스킷 드라마만

큼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임했다. 이 아이들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울 수 밖에 없는 연극이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을 언젠가 알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
점토, 비즈 공예나 풍선 때문에 혹은 우리들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교회에 발을 디딘 아이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 우리의 마음이 전해졌기를 소망한다.

수해가 드리우고 간 방루앙 마을

방루앙 마을을 가기 직전에 선교사님께서 작년에 있었던 수해와 구호활동 영상을 보여주셨다. 삶의 터전이 집어삼켜진 모습을 보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보았다. 가슴 아픈 수해였지만 태국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시점이 되었다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해주셨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였고, 그래서였을까? 수해를 겪은 이 마을은 교장선생님부터 아이들까지 더 뜨거운 환대와 배웅이 있었고 다른 학교보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방루앙 마을 역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고 예정된 부지를 보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받았다. 넓지 않은 부지였지만 눈을 감고 이곳에 세워질 주님의 집을 그리니 너무 감격스러웠다. 이곳에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 지역 사회의 아픔이 말끔하게 씻기고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곳을 아름답게 비추시길 기도했다.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

선교를 준비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닥터 깜존'이었다. 예인이네 집을 창고라고 하셨다는 에피소드만 수차례 들었을 뿐 어떤 분인지 몰랐다. 태국에서 그분을 처음 뵌 건

주일 예배 때였는데 오신지 한참이 되도록 이분이 닥터 깜존인 줄 몰랐다.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정치인에게 있어 교회는 중요한 장소다.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 얻는 유익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정계, 재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는 살롱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그 반대이다. 불교문화권인 태국에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관계를 잃을 수도, 명예를 잃을 수도 있는 유익이 없는 좁은 길이다. 하지만 그 분은 세상의 돈과 명예가 되는 관계들 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길 원했던 것 같다. 주님의 집에서 교만하게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 같이 소탈하며 편안하고 시종일관 웃는 모습은 저 분이 세상적으로 지위를 갖고 있지만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닥터 깜존과 차이 장군과 같은 분들을 통해 아름다운 영향력이 태국 땅 가운데 흘러가길 소망한다.

선교사는 직업이 아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에 참여할 때는 늘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게 된다. 선교사님께서 12년 동안 45만km를 달리며 흘린 땀과 눈물은 보지 못한다. 윤명호 선교사님과 최수옥 선교사님께서 보낸 시간들을 짤막하게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 눈물

이 나기도 했고, 기뻐서 웃기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 있었지만, 선교사님은 참으로 즐거워보였다. 선교사님을 통해 느낀 것은 선교는 일도 직업도 아닌, 삶이라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한다고 들어왔지만 선교는 다르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선교 역시 삶으로 빚어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선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고생의 길로 접어드는 희생을 감수해야하는 괴로운 일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선교사님 부부를 보며 선교사로 불리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다.

태국 사람들

플란 전도사님과 렁 전도사님과 같이 사역자로 헌신한 남매, 복음을 듣지만 미루기를 좋아하여 영접하기를 더디하는 태국 사람들, 기도 시간 중에 사진 촬영을 위해 눈을 뜨면 나를 보고 눈을 질끈 감던 사람들의 모습,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한국 땅 가운데 왔지만 인권의 유린과 차별 속에서 앓고 있는 많은 태국 사람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태국을 향한 사랑은 커져만 가고 기도의 제목들도 길어지고 있다. "선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이후의 선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인솔자이신 변두성 목사님께서 던지신 질문이다. 지면 안에 다 담지 못하고 아직 정리해야 할 마음들이 남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 삶의 비전이 되는 말씀이 더욱 굳건해졌다는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42:6

초원과 사막의 땅, 몽골 단기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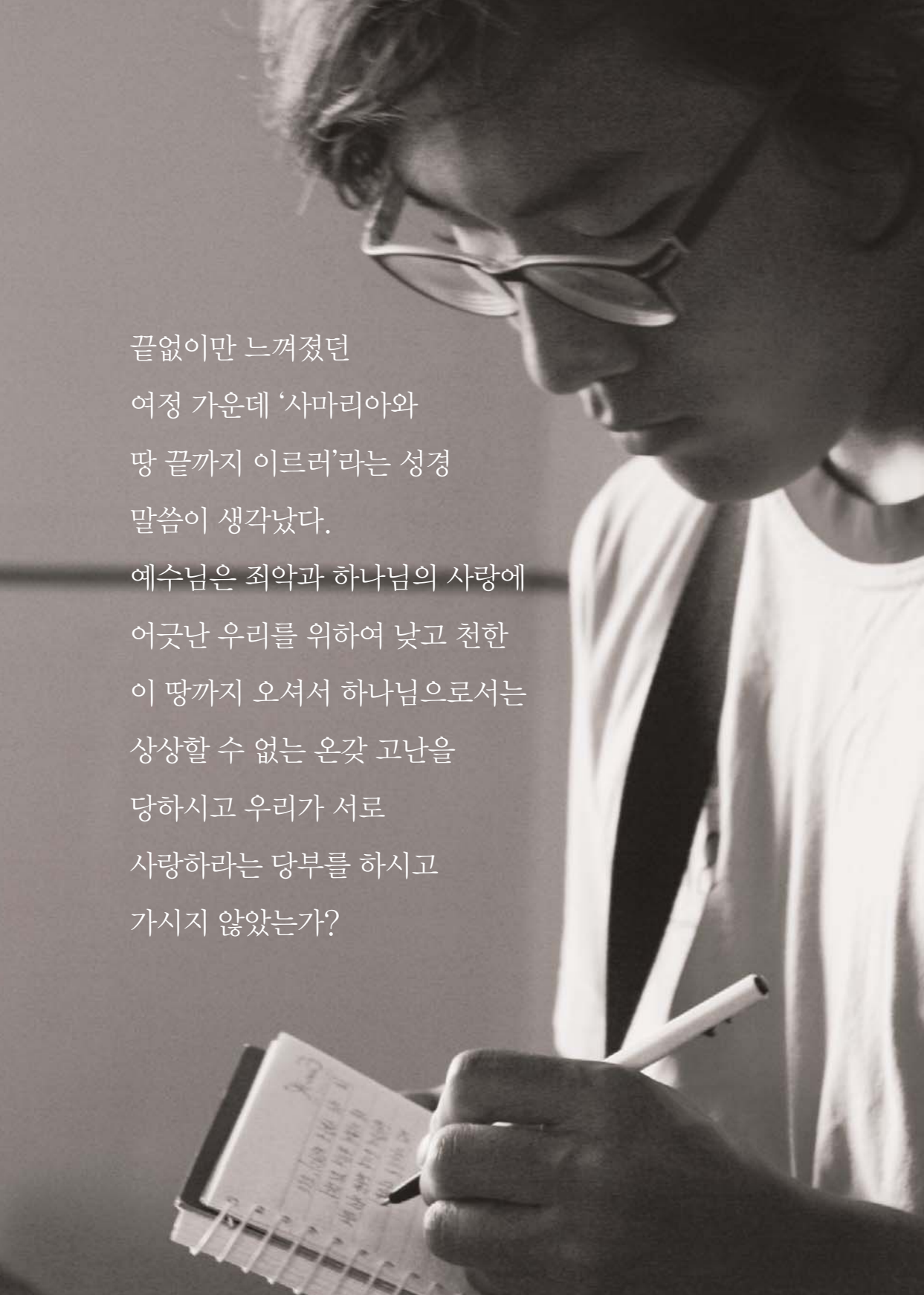
걱정과 근심을 기쁨과 소망으로

글 · 이자영 집사(가양 10목장)

올해 5월 이종현 선교사님께서 일시 귀국하여 교회에서 만났을 때 “집사님, 이번 단기선교 때 몽골에 오시는거죠? 탁구교실 해야 하니 꼭 오셔야 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때만 해도 나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평소 허리디스크와 목 디스크로 고통 받고 있었고, 더군다나 이번 몽골 선교 일정은 도르노드 지역으로 이동시간이 15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 하니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민이 더 커져갔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남편에게 상의하니 “그동안 태국선교 두 번, 중국선교 한 번 다녀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몽골선교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탁구가 이렇게 하나님 사역에 쓰임 받게 되니 기쁘지 않느냐?” 하면서 가정, 건강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녀오라고 했다.

이러한 연유로 울며 겨자 먹기로 몽골 단기선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석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7명의 팀원이 결정되었고, 기도회와 사역 프로그램 연습이 시작되었다. 처음 나만의 걱정과 생각과는 달리 늘푸른 청년회 청년들과 함께 금요일 저녁과 주일 저녁에 종이접기, 풍선아트, 스킷 드라마, 몽골어 찬양, 글 없는 전도용 책자로 전도 연습 등의 준비를 하는 것이 즐겁고 신선했다. 교회성도와 개인적인 지인들을 통해서 단기선교용 물품을 후원 받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수건, 농구공, 탁구공, 탁구 라켓, 탁구 양말, 치약, 비누, 샴푸, 헌옷 등 많은 분들이 아낌없이 후원을 해주어서 이번 선교에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였다.

7월 24일 나의 몸과 마음이 몽골을 향하여 날아갔다. 몽골 공항에 도착하니 이종현 선교



끝없이만 느껴졌던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예수님은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난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셔서 하나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당부를 하시고
가시지 않았는가?

사님과 에로나 집사님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샤르하드 은혜교회에 도착하여 도르노드 지역 교회 사역 물품과 은혜교회 사역 물품을 분리하여 정리하고 다음날 아침 6시에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도르노드 지역으로 출발하였다. 운전기사가 도르노드 지역이 초행길이어서 길을 잘 몰라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주유소에서 도르노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만나 동행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했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고,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달리고 달려 무려 18시간이 걸린 끝에 도르노드 지역 교회에 도착하였다. 끝없이만 느껴졌던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예수님은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난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셔서 하나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당부를 하시고 가시지 않았는가? 선교는 준비와 여정에서 흩어진 마음에 은혜를 입고, 현지에서 낮은 자세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깊이 잠겼다.

난생 처음 초원을 하루 종일 가로질러 선교 현지에 도착하니 우리 교회에서 몽골 울란바트로 현지에 개척하여 이제는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샤르하드(은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보여 목사님과 청년들을 만나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후 도르노드 현지인 가나 목사님 댁으로 이동하였다. 이 긴 여정과 만남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었다.

도르노드 지역 사역은 이종현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몽골 외곽 사역이어서

걱정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셨다고 한다. 그동안 매년 단기선교팀들이 행한 사역들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몽골 청소년들의 국내 단기선교 사역에 우리 팀이 합류하여 도르노르 지역 사역을 함께 하였다. 종이접기, 풍선아트, 스킷 드라마, 찬양, 노방 전도, 주민 초청잔치 등 3박 4일간의 사역을 부족한 실력이지만 열심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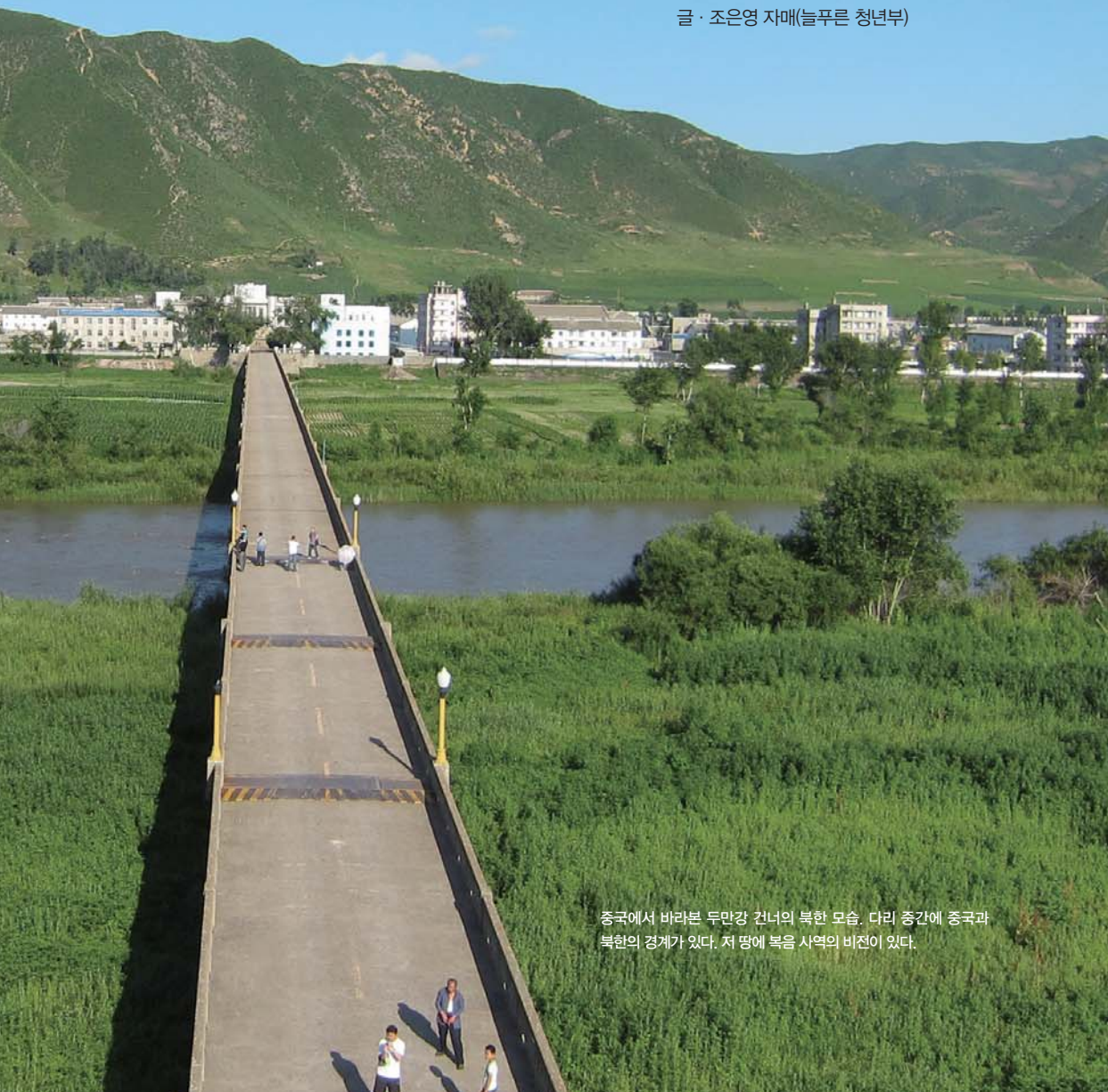
마지막 일정으로 울란바트로로 돌아와 샤르하드교회에서 의미 있는 사역이 시작되었다. 탁구, 드럼, 문화강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욕심을 내는 모습을 바라보며 짧은 시간이 못내 아쉬웠다. 7월 29일 저녁에는 바이사, 볼가 집사님 댁에서 몽골 전통 유목민 집인 게르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 분들은 작년 여름 우리교회에서 열린 선교대회에 우리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정을 나누었던 부부 집사님들로서 이번에 특별히 초청해 주셔서 몽골 현지인들의 생활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9박 10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하루 빨리 광활한 몽골 땅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귀국길에 올랐다. 단기선교를 가기 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하며 염려했던 내 자신의 연약함을 되돌아보니 부끄러운 마음에 마음이 아팠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걱정과 근심을 기쁨과 소망으로 승화시켜 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아직 해외 선교를 다녀오지 않은 분들은 용기와 결단으로 꼭 한 번 다녀오시기를 권면한다.

AX국 단기선교 동북 비전 트립'을 다녀와서

알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글 · 조은영 자매(늘푸른 청년부)



중국에서 바라본 두만강 건너의 북한 모습. 다리 중간에 중국과 북한의 경계가 있다. 저 땅에 복음 사역의 비전이 있다.

5년 만에 결심한 단기 선교.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명확히 발견하고자
중국으로의 비전 트립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6박 7일 간
–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꿈을 품은 –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동북 비전 트립'은,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인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전체를 쭉 따라갔다 돌아오는 일정으로, 많은 시간 북한을 직접 바라보며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중국에서였지만, 처음 본 북한 땅의 모습은 제게 아름다우면서도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배를 타고 압록강에서 처음 바라봤을 때, 그리고 조선족 마을인 숭선마을에서 좁은 폭의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지척에 있는 그 땅을 봤을 때, 간간히 모습을 드러냈던 북한 사람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깡말라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조차도 말라 힘이 없어보였습니다. 게다가 나무로 울창한 중국의 산과는 달리, 식량이 부족해 산을 모두 개간하고 밭을 일구어 놓은 광경은 북한의 어려운 실상을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말로는 많이 들어왔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한민족으로서 하루 빨리 북한이 개방되고 남북통일에까지 이르렀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어떻게 연단하시고 회복시키실지 기대가 되면서, 우리도 풍족함을 당연하게 여기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올바로 누리며 바로 선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하겠다는 각성을 했습니다. 정말 나는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California

북한 땅을 바라본 것 이외에도, 역사 유적 탐방의 시간 역시 개인적으로는 참 뜻 깊었습니다. 광개토대왕릉비 등 교과서에서만 보던 고구려 유적들과, 항일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지역들을 직접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족의식 고취는 물론, 당시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 힘썼듯, 지금은 영적으로 어두운 그 땅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단기선교를 준비하며 가장 많이 기도했던 비전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넓게 보게 하신 점 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북한을 향한 비즈니스 선교 사역을 자세히 듣고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동역자 조선족 김 반장님을 만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으로는 북한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은 북한을 왕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북한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조선족의 존재와 역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그 속의 우리 동포들은 우리와 함께 할 동역자인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제목이 더욱 구체적이게 되며, 그들을 예비하고 헌신하게 만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전문인 평신도 선교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도 앞으로 내가 할 일을 통해 선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선교사님과 함께 하는 동역자 분들이 상황에 국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듯, 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꿈꾸시는 것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작은 우물 안에 숨어있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부터 현실과 타협해 가고 있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드넓은 만주벌판을 보여주시고, 멋진 꿈을 가지고 달려 나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목숨 걸고 큰 뜻을 펼쳤던 독립투사들을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광활한 동북 지역 – 중국, 러시아, 한반도, 일본 – 을 바라보고 큰 도전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이번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이번에 보고 받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길 소원합니다.

글을 마치며...

비전 트립 기간 가운데 느낀 것들을 저의 부족한 문장에 모두 담아낼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성도님들도 꼭 한 번 직접 보고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고 아낌없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글 · 신신혜 기자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나는 예배자다!라는 주제로 시작한 유아부의 여름성경학교는 유아부가 생기고 처음 맞는 성경학교이기에 유치부와 함께 더불어 참여하였다. 올망 졸망한 아이들의 모습에 고사리같은 두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시간이었다.

모든 프로그램은 유치부와 함께 진행하였고, 마지막 시간에는 교회주차장 안에 유아부 어머님들이 직접 갖고 온 아기전용 풀장을 여러 개 놓아 아이들이 안전하면서도 편하게 물놀이를 즐기는 시간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에는 그동안 잘 참석하지 않았던 유아부 친구들이 부모님과 더불어 많이 참석해서 감사한 시간이었다. 또한 처음 나온 유아부친구들과 부모님들도 있어서 새 가족이 더 많이 참석하게 된 귀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활짝 열어지는 듯 했다.

약40여 명이 참여한 유아부 여름성경학교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린다.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들부터 이제 겨우 돌이 지난 아이들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까지 그 아이들이 옹알거리는 목소리가 이번 여름성경학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유아부를 부르시면 그 옹알거림으로 “네! 네!” 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면 저희는 언제나 대답할께요

“네! 네! 하나님!!!”

Yes! Yes! 하나님!

글 · 이정아 전도사

활활 불타오른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나는 예배자다."라는 주제로 아이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나 잊지 못할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자!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저 나름의 목표였더랬지요. 딱딱했던 주일 예배의 틀을 벗어나 아이들이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걸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여름성경학교 내내 불타올라있었습니다. 불타올라 너무 뜨거워 아이들에게 물벼락을 뿌려주었지만 식지 않더군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예배부터 코너학습, 레크레이션, 물총싸움까지! 매 순간마다 뜨거운 승부욕과 열정에 불타올라 그 열정을 주체할 수 없었답니다. 그 열정을 내뿜기까지 인도하시는 성령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아이들이 매 순간 보여주었던 열심과 초롱초롱했던 그 눈빛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활 불타오르기까지 묵묵히 수고해주신 유치부선생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주신 성도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불이 꺼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기름을 쭈욱 부어주는 유치부가 되겠습니다.

유치부 꼬마들 사랑해♥

1 칙칙폭폭! 최강 유치뿌 기차 나가신다~

2 다 모였어요. 천사보다 예쁜 얼굴들

3 세기의 대결! 과연 승자는 누가될까요?

4 세족식! 부끄럽거나 혹은 멋쩍거나^^

JOY! JOY!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글 · 홍대훈 전도사

“

Joy! Joy! 외치며 시작된 여름성경학교에서
유년부 친구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았으며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

2012년 유년부 여름성경학교는 '나는 예배자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최고의 예배자를 찾는 오디션 예배학교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3차 오디션 트레이닝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으며 각 오디션 트레이닝에는 찬양-율동, 예배와 공과 공부, 그리고 오디션 특별 트레이닝(코너학습 및 레크레이션, 미션을 완수하라)이 실시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 것을 배웠고 공과 공부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비교하였으며, 오디션 특별 트레이닝을 통해 자신 뿐만 아니라 팀원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부흥회 시간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찬양-율동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최종 시험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삶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구원

JUMP! JUMP!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글 · 박종환 전도사

2012년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는 '오디션 예배학교 나는 예배자다'라는 주제 아래 아이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말씀, 찬양, 공과, 코너학습, 요리경연대회, 달란트 미션 축제, 과천과학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첫째날 초등부 친구들은 각 자의 조별 활동으로 미션을 수행하면서 새로 전도된 친구들과의 호흡을 잘 맞춰 함께 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한 예배시간에는 진지하게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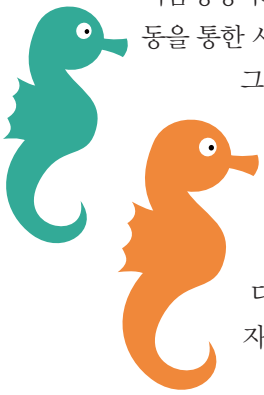
주일 예배와 함께 이루어진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에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요."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들과 카드 게임을 통해 소리높여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각 카드마다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 주인공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갖게 되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요."라고 외치며 카드를 내는 게임을 통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자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시작된 셋째 날에는 다른 날 보다 초등부 친구들의 성숙된 면을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진정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전해졌지요.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체험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에는 과천에 있는 과천국립과학관에서 여러가지 체험활동을 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초등부 모두는 분명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찬양을 드리는 시간에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소리높여 찬양하면서 참여하였으며, 공과와 코너학습에서는 각 조별의 단합된 팀웍을 보이며 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번 여름성격학교의 주제처럼 "나는 예배자다"임을 느끼며 실천하게 된 귀한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사랑
믿음
구원
양선
생명

4D 입체 가상 영상관

나는 십었고!

글 · 정찬호 집사(중등부 교사)

여름 수련회가 끝났다.
수련회 장소 섭외로 시작하여 신청서 받기, 준비 기도회, 프로그램 준비, 강사 초청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시는 전도사님을 따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순간순간들……. 어제까지만 해도 참석한다고 했던 아이가 학원이나 학교 때문에, 가족들과의 휴가로 못 간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교사도 사람인지라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려야 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이 되면 어느 순간 가졌던 불안감은 기쁨으로 바뀌고 있다.
금번 하비달중(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중등부)의 여름수련회 참가인원은 52명. '거룩한 왕따!'라는 주제로 열린 수련회에는 45인승 버스가 모자라 24인승 미니버스까지 함께 동행을 해야만 했다.
장소는 논산 벌곡에 위치한 '하늘 마루 수양관'. 나는 그 날 저녁 따로 수양관을 찾아갔다. 도착하니 먼저 와 계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낮에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다. 낮 기온 30도의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 내일이면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간이 풀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노인대학 담당 집

사님들의 수고로 매 끼니 맛있는 식사와 간식을 든든히(?) 먹을 수 있다는 등등의 이야기들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으로 주신 닭볶음탕은 일품이었고, 간식으로 주신 샌드위치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프로그램으로 특강과 야외 공동체 훈련, 미니 올림픽, 물놀이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기도시간. 아이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나'하는 심적인 부담으로, 선생님들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기에 기대감으로 맞이한 시간.

은혜를 바라며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드린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하는 기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답답했던 심정을 하나씩 예수님께 드리면서 성령은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시작했다. 조력자로 도와주시는 선생님을 따라 함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하염없이 떨어지는 눈물.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부모님께 미안해서,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음에 예수님께,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영혼이 소생됨을 느끼며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었다.

밤의 정막을 깨는 52명 중등부 영혼들의 함성! 아이들은 그렇게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가는 첫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일과를 마무리하고 차분히 짐을 정리해 수련회 장소를 빠져 나왔다. 2012년 수련회의 추억을 마음 속에 가득 간직하고 말이다.

다음 주 주일. 아이들이 기도회 가운데 약속한 것이 있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중등부 예배실로 향했다. 그리고 밀려오는 약간의 불안감, 아이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 예배 중 전도사님은 아이들 중 몇 명이 가족들과 약속이 있어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고 죄송하다고 전화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자고 했던 아이들의 마음을 어디로 줄행랑을 친 것일까?

매년 수련회가 끝나면 교사인 나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씨름 아닌 씨름을 한다. '아

니 이런 괘씸한 녀석들' 하는 마음, '그래, 아이들이니' 하는 또 다른 마음. 10여년의 교사 생활을 통하여 내가 간직해야 할 마음은 '그래'의 마음이란 것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다.

매년 있는 수련회는 어쩌면 아이들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복음의 작은 씨앗 말이다. 그리고 그것에 물을 주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도리이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나의 안달복달이 오히려 그 싹이 마르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그래,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지, 그래 그것만 해도 장하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이고 싹이 나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로 자라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글 · 국세은 자매(고등부)

저희 고등부는 수련회 한 달 전부터 매주 교회에 나와 교사와 학생이 함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는 믿음을 가지고 시간마다 마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저 또한 2학년이기에 저의 진로와 여러 가지 기도제목을 놓고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다시 한 번 경험하고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개인적으로 일주일 전부터 매일 1시간씩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준비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S.C.E 연합 수련회였습니다. 이단에 대해 쉽고 재밌게 말씀해주신 특강시간도 유익했고 특히 연예인 개그맨, P.K, 함부영 등 평소에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찬양사역자들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도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중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좋았던 시간은 저녁 집회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집회시간에 김신근, 김인환 두 분 목사님은 "비전을 갖고 세상을 바꾸자" 라는 주

제로 “인생의 차이는 꿈의 차이”, “꿈이 있는 자와 꿈이 없는 자는 인생이 다르다”, “꿈을 꾸기 위해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왜?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등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야 할 제 나이지만 저는 뚜렷한 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강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하고 그럼으로써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고2예요. 어떡하죠?”라고 기도만 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집회 기도회 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모두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후회 없이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친 다음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저희 고등부 예배가 9시에 시작되다 보니 늦게 오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시간에 찬양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수련회를 다녀온 후 예전보다 많은 인원이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찬양시간에 모두가 일어나서 찬양하는 등 확연히 달라진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기도로 준비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세상을 바꾸는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한 고등부 임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와 사랑을 기대하겠습니당~~!!!!^0^♥♥

늘푸른 청년회 국내단기선교

삼도봉에 핀 사랑의 공동체

글 · 박현정 자매(늘푸른 청년회)

도로의 표지판이 알려주고 있지 않고, 중앙현관에 교회 팻말이 달려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이 곳이 교회인가?' 내가 삼도봉중부교회에 갔을 때의 첫 느낌이었다. 너무나 적막하고 황폐한 곳, 이곳에 교회로 사역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진 곳이었다. 불과 두세 달 전의 삼도봉 교회는…

그런 삼도봉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점검하고 고민하면서, 이곳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을지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국내선교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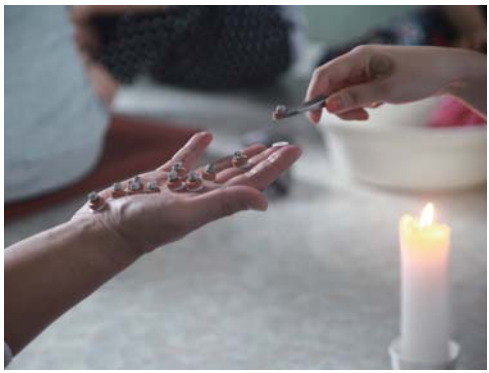
어쩌면, 용감했기에 시작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사역이 진행될 수록 필요한 물질도, 손길도 많아졌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계속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우려에

모두가 걱정하는 순간도 많았으며, 온전히 자신의 것들을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 하는 청년들의 모습들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과 물질, 마음을 들어 쓰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가시고 쉼 없이 일하셨다. 그렇게 평소에는 나뉘어져서 알지 못했던 우리 공동체의 작은 부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분의 큰 사역을 위해 조금씩 마음과 몸이 맞춰져 가고 있었다.

삼도봉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결정된 일은 화장실을 짓는 일이었다. 어쩌면 이번 국내선교의 가장 큰 사역이었고, 그만큼 물질과 일손, 시간이 제일 많이 필요한 일이었다. 화장실을 짓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일 예배 후에 주먹밥을 만들어 팔

았다. 생각만큼 맛있게 완성되진 않았지만 주일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생각했고, 또 이런 작은 부분들이 흘러 들어가 화장실을 짓는데 필요한 일손이 채워지게 되었다. 그 어느 해 여름보다 더웠던 이번 여름, 장로님과 집사님들은 인건비를 마다하시면서 도와주셨고, 사람들이 다 휴가를 떠나는 시간을 내어서 청년들도 화장실을 지었다. 그렇게 화장실 공사가 마무리 되고 드디어 우린 삼도봉교회로 국내선교를 떠났다.

이번 국내선교를 통해 우리가 삼도봉교회에 가진 궁극적인 목적은 삼도봉 교회를 사역의 장소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비 하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삼도봉 교회의 전도사님과 집사님은 교회 유지를 위해서 매년 큰 금액의 학교 대여료를 내고 계셨는데 대



2017 늘푸른 청년회 국내단기선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
2012. 8. 13 - 16 삼도봉중부교회

하나님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과 물질, 마음을 들어 쓰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가시고 쉼 없이 일하셨다. 그렇게 평소에는 나뉘어져서 알지 못했던 우리 공동체의 작은 부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분의 큰 사역을 위해 조금씩 마음과 몸이 맞춰져 가고 있었다.

여료를 마련하는 일이 노년의 두 분께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쩌면 두 분께 가장 크게 짐이 되는 그 고민거리를 덜어드림과 동시에 삼도봉 교회가 다시 생기를 찾게 하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 학교를 재정비해서 많은 교회들이 사역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오랜 시간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삼도봉교회가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일들은 매우 많았다. 교회의 사소한 부분들을 보수공사 하는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페인트칠을 다시 하고, 교회 건물을 가리던 나무들은 전지작업해서 운동장에 들어서면 학교가 한 눈에 확 트이도록 보일 수 있게 만드는 일과 삼도봉교회가 있는 마을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역도 준비했다. 교통편이 불편하고, 농사일 하시느라 미용실에 가실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시다는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미용팀과 의료팀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감사하게도 이 사역을 위해서도 미용을 하시는 박정숙 집사님과 원장님이 오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셨다.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우리들이었지만, 우리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까지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조용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오히려 우리가 깨달으며 배워가고 있었다.

물론 우리가 거창하고 대단한 사역을 이뤄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은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공동체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고 그 과정을 보게 하시는 이번 국내선교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작은 공동체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숙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귀한 사역이었다.

전교인한마음수련회

예수 안에 하나

글 · 정지연 성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조상용 목사님의 개회예배 말씀으로 기다렸던 한마음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많은 성도님이 기도로 준비하고 기다렸겠지만 쌍둥이 엄마로 가까운 곳도 가기 어려운 나로서는 정말 설레고 약간 두렵기도 한 시간이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고 출발한 한마음 수련회... 그 수련회 첫 말씀부터 우리는 가족이라니... 가족은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함께 돌보는 것이라며 하나님은 길지도 않은 단 한마디로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셨다.

점심 후에 안중근 집사님의 사회로 공동체 훈련이 이어졌다. 아이의 낮잠으로 참여하

>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고 출발한 한마음 수련회... 그 수련회 첫 말씀부터 우리는 가족이라니... 가족은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함께 돌보는 것이라며 하나님은 길지도 않은 단 한마디로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셨다.

지 못했지만 동분서주하며 움직이시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그런데 두둥~ 이게 웬일인가? 권소열 장로님과 홍순영 장로님이 여장을 하고 유아실에 나타나셨다!!! 놀라움도 잠시, 하나 둘 더 모이시더니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 세상에, 바로 조상용 목사님이셨다. '목사님은 한없는 존경과 위엄의 대상이었는데... 목사님이 여장을?' 신선한 충격이었다. 어디선가 미스 중부 한 분이 "목사님, 여집사님들이 신이 나서 목사님 얼굴에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목사님은 "우리가 이 때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스트레스 해소의 시간을 드려야지요." 정말 온몸으로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주신 미스 중부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미스 중부들이 퇴장하고 1분 복음영상 만들기의 상영시간이 왔다. 각 조마다 아이디어들이 어찌나 샘솟는지… 연기는 어디서 배워서 그렇게 잘하시는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우리 가족들 만세다!
미니 콘서트 시간에는 '꿈이 있는 자유'로 활동하신 한웅재 목사님과 함께 잔잔한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 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한웅재 목사님과 나의 모든 것 되신 그분께 감사하며, '정말 그 좁은 길, 깊은 길, 높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려드렸다.

저녁 집회시간에는 정규재 선교사님의 북한 선교 강의를 들으며 많은 성도가 은혜 받고 도전 받으며 북한을 위해 기도하였다.

홍대훈 전도사님의 기상 체조로 시작한 둘째 날. 김기현 목사님이 오셔서 미인 대칭(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에 대해 강의하셨다.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대화와 소통인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웃음과 박수치료도 하며,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법도 배우고 칭찬으로 대화하며 전도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니 유쾌하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

점심 후에 정태성 교수의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다.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진행으로 '함께' 웃으며 신이 나게 놀았다. 레크리에이션 이후에 미꾸라지 게임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불볕더위 때문에 취소되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승태 목사님이 지난 한마음수

련회에서 잡은 미꾸라지를 키웠다 놓아 준 이야기를 듣고 은근히 기다렸지만, 모든 성도님의 건강을 위하여 패스!! 그 미꾸라지는 그날 밤 올림픽 축구를 응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튀김으로 변신!! (수고하신 권사님과 집사님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규재 선교사님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품자고 다짐하면서 두 아이가 울어서 일찍 숙소로 향했다. 이후에 있을 촛불예식 시간에 너무 참여하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두 아이 역시 소중하기에, 꾹꾹 참고 육아에 전념했다. 뒷 이야기를 들어보니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의 촛불이 모여 큰불을 이루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였는데 정말 잔잔한 감동을 주고 북한과 세계 열방을 향한 비전을 품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밤에 간식으로 주신 옥수수를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한 쪽에서는 올림픽응원으로 즐거운 마지막 밤을 보냈다.
마지막 날 아침 식사를 하며 문득, 어른부터 아이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을 준비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과일이 끊이지 않게 준비해 주시고 때때로 간식도 챙겨주셔서 입이 심심하지 않은 수련회가 되게 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미꾸라지 게임을 레크리에이션으로 대신해서 그런지 마지막 날 성도의 교제 프로그램까지 레크리에이션이 너무 많은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그만한 큰 쉼이 있었고 성도님들 간에 벽을 허물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여 지루함 없이 서로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특히, 마지막에 빙고게임 형식으로 비전과 기도제목을 나눈 게임은 즐거움과 나눔이 있는 교제의 장이었다. 여덟 칸으로 접은 종이는 성경 속에 끼워 두어 볼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수련회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

수련회 기간 내내 스텝으로 애쓴 청년부원들, 초등학교 6학년의 어린 나이로 의젓하게 스텝이란 이름으로 함께 한 어린이 스텝 유훈 어린이, 여러 사역자님의 섬김은 우리들의 가슴 속 깊이 사랑이라는 꽃을 피웠다.

보혈로 뭉쳐진 중부가족이 서로 돌아보고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 다음 수련회 때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감동하는 축제의 시간을 누리고, 하나 되는 가족의 사랑을 흠뻑 느꼈으면 좋겠다.

방학도 퇴직도 없는 우렁각시들의 기쁜 봉사

글 · 배영미 기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보다,
어떤 것이든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를 찾으신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무더운 여름날, 땀에 젖은 수건을 목에 두르고, 주일 날 뵙던 고운 모습은 간데없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교회 구석구석을 닦고 있는 봉사자들을 만났다.

성도들의 왕래가 뜸한 매주 토요일 오전 시간, 가장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은밀하게 봉사하는 우리 교회의 우렁각시들인 환경 미화팀이다. 이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었기에 모든 성도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성전 청소는 집안 청소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게 되요. 크든 작든 간에 정성을 다해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마치 세상사에 찌들고 지친 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아내듯 말예요"

봉사자 이십여 분의 평균연령은 약65~70세! 50대 후반인 손석남 집사님과 황 집사님이 최고 막내라니...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젊은 사람으로 송구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 중에서 최고령인 김순녀 권사님 (77세) 은 1988년부터 25년째 봉사 중이시다. 과거 사찰 집사님 부부가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하실 때, 작은 도움이라도 될 까 해서 이종옥 권사님과 함께 강대상 청소를 하게 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신다. 그 후 점차로

함께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그분들 역시 지금까지 청소 봉사를 지속하고 계시니, 기본 10년~15년 경력의 베테랑들이시다.

"우리는 교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아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거지."

정말 그랬다. 타 부서는 교회에서 지명 임명하는 것이지만 이분들은 봉사팀장과 회계를 제외하고는 교회 조직도 어디에도 명단조차 없는 순수 자원봉사자들 이었던 것이다. 교회봉사가 무슨 대단한 권한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들의 봉사는 성도들을 상대로 하는 주일봉사도 아니고, 보이는 곳에서 드러나는 봉사도 아니니 칭찬받을 일도 없다. 그야말로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숨은 봉사인 것이다.

"엄만 왜 그렇게 허드렛일만 하냐고 자식들이 뭐라고 하는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봉사하고 싶어요. 우리는 방학도 없고 퇴직도 없어요. 그래도 기쁘고 감사해."

"우리 마음이 다 한 마음이야. 이 일을 책임감과 인간적인 열심으로 했다면 벌써 지쳤을거야.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일이라 지치지도 않고 시험들 일도 없어."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라 해도 여럿이 함께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다반사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니 시험들 일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만으로 충분하다는 이분들께 그래도 봉사하면서 힘들거나 불편한 점, 또는 성도님들께 바라는 점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손을 내저으며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감사한데 뭐가 힘들어요? 불편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받은 게 더 많지. 여기 있는 분들이 편찮으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 나았어! 신기하지?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야!"

"힘든 것 보다는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격려로 힘을 얻어요. 매년 수건과 양말을 후원해 주시는 김기태 집사님이나, 본인이 봉사를 못해서 미안하다며 찬조금을 주시는 정영자 권사님, 그리고 홍순영 장로님!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또 연2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비품 구입하고 스무 명의 식사를 챙기려면 빠듯할텐데, 이명선(환경미화팀장)권사님이 농사 진 채소며 양념들을 가져오셔서 매주 점심식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시죠. 이렇게 돕는 마음과 정성으로 지어진 밥을 먹으니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맛있고, 땀 흘리고 먹는 밥이라 더 맛나고, 함께 수고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으니 즐겁고 그래요."

고령의 봉사자들이 많아 젊은이들의 무관심을 질타하진 않으실까 내심 마음 조리고 있었는데,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감사하다고만 하신다.

"굳이 바라는 걸 묻는다면, 교회를 내 집 같이 아껴서 깨끗하게 써 줬으면 해. 유리창 청소가 좀 힘든데, 내가 청소해보니 유리는 손으로 안 만지게 되더라구."

봉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도, 유익되게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에 한해서 일 것이다. 이득을 위한 봉사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 마지못해 하는 억지봉사 등 참되지 않은 이름만의 봉사는 남을 기쁘게도, 유익하게도 못할 뿐더러 스스로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한다. 누군가는 청소를 정신수양이라고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쁠 뿐, 불만도 바라는 것도 없다는 봉사자들의 모습은 실로 봉사의 최고 경지에 도달한 듯 보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며, 내 스스로가 기쁜 봉사!

받은 은혜에 감동해서 마음으로 실천하는 우렁이 어르신들의 참된 봉사에 감동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을 볼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다.

이종옥 권사의 아름다운 외침

예수천당! 불신지옥!

글 · 최정은 기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한 순간 한 호흡도 쉬지 않으시며 전도에 온 삶을 바치고 계시는
미모의 허스키 보이스 이종옥 권사님의 삶의 고백을 들어보자.

어린 시절 아버지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꾸준하지 못하였고 신앙의 의미도 잘 몰랐던 터라 특별한 의미 없이 불교 가정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남편(정기조 집사)의 직장도 좋았고, 슬하에 삼남매를 두게 되었으며 누가 봐도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삶에 만족이 없이 허무와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던 중 '딸아이가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다'며 중부교회에서 두 분의 집사님들이 심방을 하게 되었고 그 분들이 저에게 '이제 신앙생활 좀 한번 해 보시지요'하며 권하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고 결혼 후 10년이 지날 무렵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가정에 싸움이 잦아지며 여러 가지로 근심이 많았던 터라 그로부터 며칠 후 스스로 중부교회에 나가서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몸이 너무나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며 여러 가지 검사와 약을 먹어도 아무 병명도 없고 아무 효험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교회에 나오고 6개월 만에 말씀과 기도로 아픈 부분들이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그 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으며 지금까지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을 품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삶과 신앙에 본격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살길이 막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용기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는 말씀을 주시며 위로하셨다.

"그 당시 남편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제가 신앙에 너무 빠지다보니까 남편은 저에게 핍박을 많이 하였어요. 그럴 때 마다 남편이 불쌍히 여겨졌고 묵묵히 견디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사26:3)'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견디어 나가게 되었어요."

고진감래라 하였던가. 그토록 핍박을 일삼던 남편이 어느 날 아버지학교를 통하여 극적으로 변화를 받게 되었고, 지금은 새사람이 되어 안수집사가 되었으며 새벽기도와 영성집회, 가정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또한, 남편이 백혈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질병을 친히 고치시고 정상적인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육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고비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세 자녀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신앙으로 키우게 하셨다. 큰 딸은 목회자의 사모가 되게 하셨고, 아들은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다. 작은 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하였지만 지금은 시댁의 온 가족을 구원으로 안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을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고 걷는 자의 역사가 아니라 걷게 하시는 자의 역사임을 새삼 알게 된다. 세상 어느 부귀영화보다 예수님 믿는 것이 축복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71)'라는 말씀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이제는 부러울 것이 없다.

또 선물로 주신 손자 손녀가 8남매가 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부귀와 명예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부귀영화 가진 것 없어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른다.

비록 작고 초라한 집이지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라는 것을 실감하며 살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다시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날마다 송이꿀 같은 말씀과 신앙의 여러 가지로 훈련 시켜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저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오늘도 내일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과 더불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만 자랑하는 전도자로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늘나라 갈 때 까지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끝으로, 권사님을 예전부터 잘 알고 계신다는 한 이웃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아! 그분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알다마다요. 아~ 글씨... 지금 때가 워느땐디 촌스럽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랍니까? 도대체가 세련된 맛이 없는 분이지요. 그런데 그분을 만날 때 마다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건네는 전도지를 받게 되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숙연함이라고나 할까 도무지 모를 거부하기 힘든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컨대, 아마도 그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종옥 권사님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 때문일 것이리라 조심스레 짐작해본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열정이라는 이름의 하모니...

글 · 조재란 기자

가양1동 여성합창단원들은 총 33분이신데
최연소자의 연령이 55세이시다.
종교, 나이 등 특별한 기준이나 조건 없이
음악과 노래를 사랑하는 분들이
자원해서 만들어진 합창단이다.

촉촉한 단비가 한여름의 불볕더위를 식혀주던 어느 금요일 아침, 가양1동 여성합창단의 연습장소인 가양감리교회를 찾았다. 여러 어르신들께서 2층으로 올라가시기에 따라 가보았다더니 성가대 연습실에 모여 계셨다.

잠시 후 반주자와 합창단의 리더인 지휘자께서 도착했는데 다름 아닌 우리 교회 할렐루야성가대 지휘자인 장지이 지휘자였다. 수개월 간 지휘자의 공백으로 많이 힘들었던 할렐루야성가대에 올해 초 하나님께서는 장지이 지휘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그 후로 지금까지 너무도 은혜롭고 열정적으로 성가대를 이끌어 주어 장지휘자에겐 장마에, 장칼린이란 닉네임이 붙여졌다. 우리 교회 귀한 일꾼을 그 곳에서 만나니 더욱 반가웠다.

가양1동 여성합창단원들은 총 33분이신데 최연소자의 연령이 55세이시다. 종교, 나이 등 특별한 기준이나 조건 없이 음악과 노래를 사랑하는 분들이 자원해서 만들어진 합

창단이다. 다음 달인 9월 3일부터 16일까지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대전국제합창페스티벌이 열리는데 가양1동 동사무소에서 그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합창단모집광고를 하여 참가 지원신청을 한 여성분들로 구성되어졌는데 대부분이 가양1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 학생들이시다.

5월 초 합창단이 정식으로 결성되었고 평소 가양1동사무소와 지역행사를 위해 협력하던 가양감리교회에서 흔쾌히 연습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약 두 시간 정도 연습을 하신다. 가요 부르기에 익숙해 있던 단원들이라 클래식 곡을 부를 때에도 가요발성으로 합창을 하시어 발성을 교정하는 것이 많이 힘드셨다고 한다.

우리 성가대를 생각해보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서 웃음이 나왔다. 우리 성가대에서도 가끔 트롯발성이 들리곤 한다.^^

모든 합창대가 대전국제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각 구별로 대항을 해서 뽑힌 단 한 팀만이 참가자격이 주어지는데 동구는 총 열한개 팀이라고 한다. 열한개 팀 중에서 한 팀만이 참가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약 15분에서 2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 안에 3곡을 부르는데 동요메들리와 '산

촌'이라는 제목의 민요 한 곡, '그대 있는 곳까지'라는 제목의 외국 곡 등, 총 세곡을 부를 예정이다.

적은 연세들은 아니시라 악보 보는 것도 힘들고 가사도 안보이셔서 곡을 거의 외워서 불러야 할 정도로 많이 힘든 여건인데도 열정 하나로 잘 해내고 계신다고 한다.

모 방송국의 TV프로그램이었던 남자의 자격이란 프로그램의 영향력도 컸다고 한다. 나이, 학벌, 성별, 환경, 모든 조건을 불문하고 오직 열정이라는 자격하나로 도전하여 잠자던 능력을 깨우고 삶의 희망과 능력을 주었던 온 국민이 애청하던 프로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인간에게만 주신 여러 가지 은혜 중에 또 하나가 열정이 아닌가 싶다.

장 지휘자가 처음 합창단원들을 만났을 땐 좀처럼 웃음이 없으셔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단원들이 지금은 너무도 환하게 잘 웃으셔서 마치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한다.

9월 6일! 대전국제합창페스티벌 참가자격의 향방이 가려지게 되는 구별대항을 하게 된다. 그 날까지 더 뜨거운 열정을 발휘하시어 가양1동 여성합창단이 대전국제합창페스티벌의 무대인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본다.

내가 나 된 것은…

글 · 나다인 사모

전도사 사모로 지낸 시간 이제 불과 4년, 아직은 사모라는 호칭조차 어색한 내게, '함께' 지에 올릴 사모의 글을 말씀하셔서 무슨 이야기를 써야 할까 한참을 망설였다. 작은 지면 하나가 참 어려운 숙제 같았다면 표현이 될까? 그래서 아직 사모로서 말하기 보다는 아내, 이제 막 신참 엄마가 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작은 마음을 나눠 보고 싶다.

스물둘이 되던 해에 일본 단기 선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다.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가슴 벅찬 주님의 은혜에 며칠을 목놓아 울었던 것 같다.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그제서야 내가 세상에 태어남이 감사했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신 것, 그것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 좀더 일찍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너무도 아쉬울 만큼 앞으로의 나의 삶이 기대되기 시작했고, 그런 내게 주님께서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시며 그 누구보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하셨다.

처음 남편을 만나 2009년 3월 결혼까지 꼭 1년의 시간이 걸렸다.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면서 결혼까지 정확히 말하면 9개월이니 소위 어른들이 말하는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결혼을 했다. 돈도 살 집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결혼이라니,,,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정말 무모했고 용감했던 것 같다.

사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혼해서 힘들게 가정을 이루기 보단 편하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던 나였기에 결혼 자체 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결혼생활이 시작되고 환경, 재정, 학업, 직장, 자녀 어느 것 하나 내겐 쉬운 상황이 없었다. 남들보다 몇 배의 에너지를 쏟고 있다 생각했지만, 변화를 유독 힘들어 하는 나의 기질 때문에 눈에 띄게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며 은혜를 보여주셨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녀 문제이다. 결혼 1년 뒤부터 자녀를 달라 기도하며 병원 문턱을 숱하게 밟았었다. 그러다가 자연임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우리부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한참을 기도하며 울었었다. 그리고는 다니던 병원도 약도 자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멈춰버렸다. 이미 자녀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손을 떠난 일임을 알고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 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우리에게 결국 부모의 역할을 허락 하셨다. 그렇게 태어난 승우가 벌써 120일이다. 승우가 사는 하루 하루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은혜의 증거이고 감사의 조건이 된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게 불가능 할 것만 같았던 아내와 엄마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 나를 삶 가운데 혼자 두지 않으셨다. 오히려 세세하게 간섭하시며 풍성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던 것 같다. 이것이 '내가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이유이다.

광복절 기념 교회 연합예배

8.15 광복절 67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동구기독교연합회(회장 신청 목사) 주최로 8월12일 주일 오후3시에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 교회의 조상용 목사님 사회로 드려진 연합기념예배는 교파를 초월한 대전시 동구지역 교회들이 함께 했다.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은 '의인 10명을 인하여'를 제목으로 영성은 실추되고 물질주의만 난무하는 이 시대에 의인 10명의 역할에 대해 설교 하였으며, 북한 탈북여성 1호 박사인 이애란 박사는 북한의 실정과 간증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제2의 광복은 남북통일이며, 이때 우리 크리스찬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였다.

2020 비전 선교사 파송

2011년 8월 우리 교회는 Mission Revival 2020 대회의 마지막 날 조상용 목사님이 “대전중부교회가 선교에 더 큰 비전을 갖고 실천하기 위해서 앞으로 20년 안에 매년 1명 씩,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신 선교 비전 선포를 기억한다. 그때의 비전 선포 첫 선교사님으로 정재규 선교사님을 교회 설립 54주년인 9월 기념예배에서 파송하기로 하였다. 고려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풀무원 등에서의 경험과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설립 및 교수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평신도 선교사 역할을 하시던 정재규 선교사님은 총회적으로도 타 선교지에 비해서 절대 부족한 북한선교를 담당하시게 된다.

정재규 선교사의 선교비전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정재규 선교사님은 8월 19일 주일예배에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 줄 사명은 통일된 나라, 북한이 복음화된 나라”라며 “매인 것을 푸는데 앞장서는 대전중부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지민이의 자석 블록 작품

지민(유치부.7살)이는 만들기를 참 좋아하는 사랑스런 아이다.

유치부에서도 찬양과 성경암송시간이면 누구보다도 적극적이며, 아빠 서호석(1교구 1-1남자목장) 집사, 엄마 김민희(오류목장) 성도의 큰아들이며 동생 영민(유치부.5세)이가 있다. 서호석 집사는 유년시절 타 교회에 다니다가 아버지(서정무 장로님)과 어머니(정영자 권사님)이 이사 오시면서 우리 교회에 함께 다니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또한 가양감리교회 서민석 목사님이 친형이기도 한 뿌리 깊은 믿음의 집안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지민이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시간을 좋아한다고 한다. 차분하면서 듬직해 보이는 지민이는 믿음의 가정의 귀한 열매가 확실하다.

교우, 가족, 이웃과 함께하는 '함께'지!

더 잘 활용하는 방법 10가지

하나, 새로 나온 '함께'지는 모든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기

둘, 가족들과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

셋, 이웃에게 전할 '함께'지는 언제든 추가로 가져가 전달하기

넷, 전도를 할 때에도 '함께'지 잊지 말기

다섯, 은행, 병원, 동사무소 등 비치가 가능한 곳에 '함께'지 비치하기

여섯, 군복무나 유학 등으로 우리 교회를 잠시 떠난 교우들에게 '함께'지 보내주기

일곱, 우리 교회를 다녀간 교역자들께 '함께'지 보내주기

여덟, '함께'지에 대한 쓴 소리, 단 소리 언제든 전달하기

아홉,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호 기다리기

열, '함께'지는 늘 열려있는 우리들의 공간. 언제나 함께하기

대전중부교회 042-622-9991 www.jungbu.or.kr

※ 본지를 읽고 가져가셔도 됩니다.